

5-1. 지곡동 마을 협동운동

1)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지곡리에도 시작되었다. 주로 마을길 넓히기, 지붕개량, 공동우물 청결사업, 부엌개량, 통장 만들기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활동내용을 보면 타곳에서 보듯이 절미항아리를 부엌에 놓고 밥 지을 때 한 수저씩 덜어 놓았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판매하여 통장으로 나누어주어 저축정신을 함양하는 운동을 ‘절미운동’이라 했다.

마을길 가꾸기 사업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넓고 곧게 펴는 운동으로 인근 토지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자진해서 기부하는 감동적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장 이선규와 새마을지도자 이용주가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기부 받기도 했다. 작업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 노동으로 해결했으며 이를 ‘부역’이라 불렀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마을 꽃길 가꾸기, 마을 길 청소하기 등이었는데 당시 새벽이면 확성기를 통해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이를 듣고 나온 주민들은 “마을청소 하자”는 구호와 함께 새벽청소를 하였다.



새마을 아침 청소 (1970년대)

지붕개량 사업도 주요한 새마을운동의 하나였다. 이영으로 덮은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양철로 바꾸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강제 집행되기도 했는데 집 주인이 일하러 나간 사이 공무원들이 지붕에 올라가 뜯어내기도 했다. 특히 고속도로 등 대로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이 같은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흙 부뚜막을 시멘트 부뚜막으로 바꾸고 공동우물을 청결히 하는 등 각종 생활 편리를 위한 개선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1970년대 중반 새마을회의를 거쳐 하동마을 논에 **논보리심기**¹⁾를 하고 밭아주기 등 제반 노동을 공동으로 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논보리 농사는 성과가 좋아 당시 용인군수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상동에서는 고구마를 공동으로 심기로 하고 지금은 창고로 변모하였으나 상동마을 입구 장승백이에 이양구씨 밭을 무상으로 빌리어 고구마를 심어 소득을 올렸다. 새마을운동 첫 해에 국가에서 마을 환경개선을 하도록 시멘트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으나 모든

당시는 가을 논농사가 끝나면 겨우내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심지 않고 한철 휴경하였다.



다리 준공 후 제방공사

마을이 마을을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지곡동 주민들은 간단한 농수로를 개설 하거나 환경개선에 투입하여 일정 효과를 거두었다.

나누어 준 시멘트를 마을을 위해 사용한 마을에 다시 더 많은 시멘트와 철강을 지원함에 지곡동 주민들은 회의에서 숙원사업인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교량은 네 곳을 건설하여야 하는데 한천말에 들어가는 다리, 하동과 상동을 잇는 다리, 현 상동 마을 회관에서 사기막골로 올라가는 다리, 기와집말에서 사기막골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하고 1차로 한천말 다리, 하동-상동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은 교량건설을 하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 설계에 따라 진행하나 설계 비용도 없고 전문가가 지곡동에 없어 공병대를 제대한 이영구의 주도하에 주먹구구식으로 건설하였다,

그 과정은 1972년 농한기를 이용해야 모든 주민이 참석할 수 있어 2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일손은 모든 가정에서 한사람씩 부역하기로 결정하였다.

첫 공정은 하천에 땅을 파야하는데 지금은 기계를 이용하나 당시는 도구라고 삽, 괭이, 지게 뿐이라 고생이 적지 않았다. 한겨울에 언 땅을 파고 언 땅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지



지곡1교 준공식 (1972년)



지곡2 한천말 다리공사



지곡2 한천말 다리공사

게로 날랐으며 거푸집을 만드는 등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3개월 여 만에 완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교량건설을 완공한 기쁨과 함께 협동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효과가 더 컸다. 당시 변재호의 말에 의하면 한 달에 20일정도 부역을 하였다.

그간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보면 이용주, 박중희, 곽용길, 장관수, 공택영, 한보희, 변재호, 임만직, 이근만, 고광덕, 곽성흙, 정기연 등이 있고 이들의 물심양면 희생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이장 이선규의 공정한 일처리와 아무 직함도 없이 교량건설, 소득사업에 노력한 이영구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2) 주민의 땀으로 완성한 도로포장

지곡동의 숙원 사업인 교량건설을 마치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한천말에서 사기막까지 3km의 도로포장이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었다. 이 사업을 위한 자원은 정부로부터 시멘트 6,400포를 무상지원 받고 용인군 지원 500여 만 원, 마을기금 750여 만 원, 이곳 출신 중 외지에 나간 출향인이나 지곡동에 토지나 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회사들로부터 찬조 1,850여 만 원, 수리계 300만원 그리고 주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도로포장을 완성하였다.

찬조는 마을 대표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도로포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찬조금을 받았으며 대표자들은 품값은 물론 비용도 자비로 충당하면서 찬조금을 받아왔다. 주민자부담은 생활수준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여 각출하였으며 1등급 15만원, 6등급은 2만원 이었으며 부담금을 지불하지 못 한 이들은 1일 1만원 씩 계산하여 노동으로 대체하였다. 마을의 공동 일 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담금을 내면서도 부역을 하여 이루어진 지곡동 마을사업이었다.

특히 이영구는 시멘트를 비비거나 도로 포장하는 일을 진두지휘하여야 함으로 쉬는 날 없이 일을 했다. 칭찬이 자자한 마을의 지도자이며 봉사자였다. 총공사비는 8,100여 만 원이었으며 공사 후 정산 한 결과 39만원이 남은 돈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대표자들에게

감사헌금으로 드렸다.

시멘트를 여러 날 쌓아놓으면 굳어 못 쓰게 된다. 그런 관계로 주민들이 조를 짜 시멘트 뒤집어놓기를 하였는데 이 일은 아주 힘이 들었다고 한다. 이 도로는 2000년대 초까지 보수하며 이용하였으나 국가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편리한 길이 되었으며 2017년 인도를 조성 중에 있다.

3) 쓰레기하치장 설치 반대 운동

2013년 어느 날, 지곡동 다래울 마을에 어느 회사에서 전국 쓰레기를 모아 재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는 풍문이 돌았다. 주민들이 조사해보니 시설이 입주할 경우 쓰레기의 분진과 악취는 물론 하루 교통량이 수백 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마을회의를 거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박춘말 토박이 박일선을 대표로 하고 반대운동은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하동 마을기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지곡동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용인시장, 시의회의장을 접견하여 부당성을 공지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

한편 관련 기업인 인천에 소재한 주식회사롯데, 수원에 있는 한국전력 경기지사과 이곳에 선산이 있고 안성시에 소재한 해주오씨 종중을 찾아가 이 운동에 협조를 부탁하여 일 년 여 만에 취소통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4) 지곡동 혼화제연구소 설치 반대 운동

지곡초등학교 옆(지곡동 436-12번지 일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반대 운동은 지곡동에 새로 지어진 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과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으로 지역 원주민들도 그 뜻에 동의하여 참여하였다. 사업은 2010년부터 몇 번이나 취하되었던 사업이 또 2014년에 주민들과 학교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승인이



지곡초와 혼화재연구소

뒀으므로 여전히 반대운동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첫째, 학교와 20~30미터 떨어진 학교정화구역 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들과 향후 사용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을 제3기관의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사업주의 입장만 배려하여 승인해 주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유해환경에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나 잠재된 유해성과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점.

셋째, 공사에 따른 좁은 등하곶길 위협과 생태학습장이자 자연놀이터이었던 해당 사업부지가 없어짐으로써 정서적 자연공간이 훼손된다는 점 등이다.

이종구

5-2. 문서로 보는 지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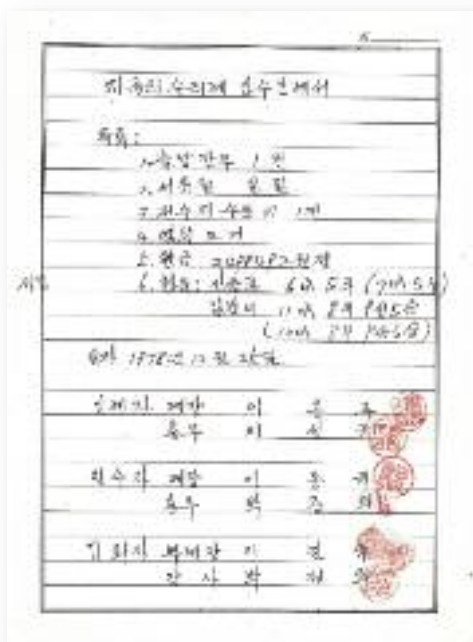
수리게 영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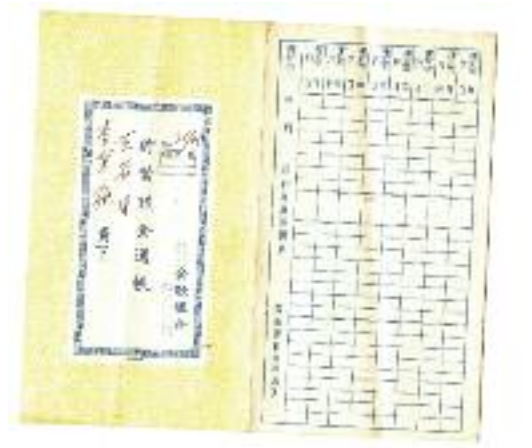
원적부



지곡저수지 관련 수리계 문서



저금통장



건국 초기 납세영수증 (1947년)



건국 국채 증서



일제강점기 변제 증서



영수증

6 사진으로 보는 지곡동

- 6-1 지곡동 구석구석 살펴보기 276
- 6-2 추억 속의 지곡동과 사람들 286
- 6-3 하늘에서 본 지곡동 290

6-1. 지곡동의 구석구석 살펴보기

| 사진으로 보는 지곡동











사진_서정표

6-2. 추억속의 지곡동과 사람들

| 사진으로 보는 지곡동



송아지와 초가지붕_1960년대 조성옥(이종구 모친)

성묘 모습



다섯 자녀와 함께 한 이광직



청년들 천렵(1970년대)



청첩장

이서규 옹 처갓집에서 결혼식 후



장가 가는 날(이진규)



잔치집 풍경

친구들과 함께



소풍



정미소



농약 주기(1970년)

양봉

한산 이씨 시제후(1994년)



사기막골 1980년대 모습

호도관광



아유회



6-3. 하늘에서 본 지곡동

| 사진으로 보는 지곡동







드론촬영_우상표

지곡동지 편찬위원회 >>> 지문위원	이양구 (용인향교 전교)
	이현규 (전 용인문화원장)
	이진규 (지곡동 노인회장)
	곽용길 (전 지곡동 이장)
	박중희 (전 지곡동 이장)
	고광부 (지곡노인회 부회장)
	한규원 (전 지곡동 개발위원장)
	위원장 이변구 (지곡동 2통장)
편찬위원	박현희 (지곡동 1통장)
	최종실 (지곡동 개발위원장)
	정기연 (새마을지도자)
	김상기 (전 지곡동 개발위원장)
	공택영 (전 지곡동 새마을 지도자)

지곡동지 집필위원회 >>> 위원장	이종구
조사·집필/집필 순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이종구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장)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손윤한 (생태활동가)
	진 속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희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을영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김도영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근 (용인학연구소 부소장)
	박숙현 (용인신문사 회장)
	송무경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주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서정표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마을전도 제작 변해익 (화가)

사무행정 박명희 (용인문화원 주임)

※지곡동지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지곡동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촌과 도시의 경계마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마을**

농촌과 도시의 경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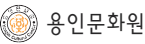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마을**

발행일 : 2017년 12월 26일

발행기관 : 용인문화원

발행인 : 조길생

인쇄 : 좋은사람들



용인문화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종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3층

전화 : 031-324-9600 <http://www.ycc50.org>

*이 책의 저작권은 용인문화원에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용인문화원의 문서를 통한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87020-03-5 〈비매품〉

*이 책은 용인시 보조금과 지곡동 마을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곡동지 제작에 후원해 주신 분들(보내주신 순)

- | | | |
|-----------------------|-----------------------|------------------|
| ■ 지곡 2통 마을(대표 이변구) | ■ 이진규(한산이씨 종중) | ■ 이양구(용인향교 전교) |
| ■ 최종실(개발위원장) | ■ 이근구(용인향교 장의) | ■ 이원구(한산이씨 종중이사) |
| ■ 이진규(한산이씨 음애평파 회장) | ■ 이경구(전 리장) | ■ 이명규(한산이씨 이사) |
| ■ 이은규(한산이씨 이사) | ■ 곽창기(전 경기도상공회의소 부회장) | ■ 곽성흙(전 이장) |
| ■ 이현규(전 용인문화원장) | ■ 이응규(한산이씨 이사) | ■ 이지규(한산이씨 이사) |
| ■ 이태구(한산이씨 음애평 종회 총무) | ■ 정기연(새마을지도자) | |

